

예금보호한도액 1억으로 상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새해 달라진 금융제도·시책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폭 확대
영세·중소기업 카드 수수료 인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탄핵정국 등의 여파로 경제 불안이 겹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금융제도 및 시책을 미리 알아두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4개 분야 27개 항목의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며,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도 이달 본격 시행된다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하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도 강화된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늘었으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3~4월), 상생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율도 다음달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도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교세 및 기여금 혜택이 지원된

다.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도 도입한다.

세부 내용 등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index>)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세제', '보건·복지·고용' 등 분야별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되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도 폐지된다.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

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모두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을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한다.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하며,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만원→25만원 △둘째 20만원→30만원 △셋째 30만원→4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세제 특례도 부여된다. 기존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취득 기한은 오는 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월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非)아파트에 대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해당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홈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경제·일자리, 복지·돌봄, 민생안정시책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 공개란과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main.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이마트, 새해 첫 할인 '고래잇 페스타'

5일까지 최대 50% 할인

이마트는 오는 5일까지 새해 첫 할인행사인 '고래잇 페스타'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고래잇 페스타'는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모은 '고래잇템'(고래잇+아이템) 14종과 카테고리별 2개 이상 구매 시 50%를 할인하는 등 고객이 '정말 싸다'라고 느끼는 수준의 '응(%)' 가격으로 구성된다.

이마트는 '고객이 응(%)할 때까지' 할인혜택을 강화한다는 컨셉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주요 상품 대상으로 최대 50%, 골라담기 등 파격 할인을 진행한다. 봉지라면과 빅파이, 몽쉘 등 파이류, 즉석 국당과 껌 전품목을 품목별 각 3개 골라담기 9900원에 판매하



며, 고추장/된장/쌈장, 냉동 교자만두 11종, 국산두부, 냉장 우동 2인, 제로 탄산 음료, 냉동 피자 와 핫도그 등은 품목별로 각 2개 이상 구매 시 50%를 할인한다.

이 외에도 바디로션, 면도기/8입날, 핸드워시, 헤어염모제와 전동칫솔 등 일상용품 각 카테고리 대상으로도 품목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나다운 기자**

광주경총, '참사 애도' 15일까지 행사 취소

광주경총은 1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신년인사회는 물론 오는 15일까지 금요조찬포럼 등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전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연초 행사를 개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15일까지 계획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경총은 3일 오전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제인 합동 조문은 일정대로 추진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9일까지 130여종 상품 선봬

광주신세계는 설 선물 세트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2025 바이어가 직접 추천하는 설 선물 세트 130여종에 대한 사전예약을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혜택과 더불어 수산, 정육부터 과일, 식료품까지 품목의 다양화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부터 가성비 있는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했다.

신세계 직거래를 통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과일 선물세트인 '셀렉트팜'은 대표적인 설 선물세트로 손꼽힌다. 셀렉트팜은 신세계가 산지부터 유통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부담은 줄이고 최상급의 과일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셀렉트팜 사과배 혼합다복'(17만1000원), '로컬 알찬 사과 배'(9만9000원), '셀렉트팜 제주겨울향기'(9만5000원), '애플망고 만복'(20만2000원) 등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과일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특히 신세계의 축산 바이어 및 지정 중



광주신세계는 설 선물 세트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매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유통단계를 줄인 '신세계 양소 한우 만복'(31만6000원) 제품도 대대적으로 선보인다.

더불어 한정수량으로 특별한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명품 한우 만복'(66만5000원), '안성마춤 한우 만복'(49만4000원) 등 축산 직매입 제품들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수산 매장에서는 '탐라 진갈치'(24만원), '성산포 은갈치'(13만8000원), '참전복 다복'(25만원) 등 직매입을 통해 할인혜택을 적용했다.

특히 올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비즈웍스 알코올셀100 세트'(13만6000원), '흑삼산삼 배양근'(5만원), '아르기닌·마그네슘 부스터샷'(8만8800원) 등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50% 할인혜택으로 준비했다.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선물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수입 식료품도 눈에 띈다.

'르페즈블랑쉬 시어핀 플로드셀 소금 세트'(11만3000원), '지미트리플 4종'(9만9000원), '마이칼리소스 소금 3종 세트'(4만원) 등 20% 이상 할인혜택을 통해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다운 기자**

재테크 칼럼

2025 투자 계획, 환율 추이 면밀히 살펴야

날개 없이 추락하는 환율이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위험수준인 1400원대를 작년 초에 돌파하더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상태로 1500원대를 위협하며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공포에 휩싸였던 2009년 외환위기 수준의 환율을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의 강세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달러인덱스가 108로

다른 국가의 화폐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국들 중에서도 한국 원화의 하락이 가장 크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면 위안화가 흔들릴 위험이 크고 이에 따라 원화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첩첩산중인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증시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 금, 달러 등 인플레이션과 환율로부터 보

호받거나 때로는 보호를 넘어서 오히려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곳에 투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투자 방향은 2025년에도 주효할 것 같다. 한국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2차전지 등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업종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도 더 깊은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역이나 여행업 수출입에 종사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환율에 둔감하다. 급여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도 원화로 받고 소비도 원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환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고 원화의 비중은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환율에 관심을 가져야 손해를 최소화 시키거나 오히려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화를 단순히 달러로 환전해서 지난 1년간 보유했다면 달러는 원화 대비 10%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효과와 함께 원화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달러, 유로화 등 일정액의 외화를 단순하게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테슬라 등 미국증시에 투자했다면 주가 상승의 효과와 함께 환율 상승의 보너스를 덩어리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원화를 보유하는 것은 환율이 안정될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 조유의 내란 정치 상황이 정리되고 한국경제가 되살아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한국 증시, 부동산 등의 투자에도 조심해야 한다.